

지역 소식통

고창교육지원청, 직원 대상

청렴 다짐 릴레이 행사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청렴 문화 확산과 공정한 직무 수행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다짐 릴레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스스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서로의 다짐을 공유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참여형 청렴 캠페인이다. 특히 직원들이 직접 청렴 실천 문구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 체감하고, 서로의 다짐을 공유하며 청렴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직원 간 소통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제1기 도시민

귀농귀촌 체험학교 개최

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회장 이성기)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예비 귀농귀촌인 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1기 도시민 귀농귀촌 체험학교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에 관심이 높은 도시민을 유치하여 지역의 우수한 정주여건을 홍보 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단기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1기 교육생은 경기도 10명, 서울 8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72%를 차지했다. 주요 교육 과정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을 중심으로 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설명,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체험, 귀농 성공모델 현장 탐방 및 체험, 부안 명소 탐방(내소사, 변산마실길 3코스 등), 선배 귀농인과의 간담회 및 현장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미래 복지 이정표 세운다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민관합동 심층토론회 성료

정읍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는 2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와 심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호연 정읍시장 권한대행과 정관일 정읍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해 분과위원,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식산업연구원 등이 맡아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연구진은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와 자원을 꼼꼼하게 조사해 정읍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 열렸다. 1부 착수보고회에서는 계획 수립 방향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곧바로 이어진 2부 표적 집단 심층 토론회(FGI)에서는 현장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지역 복지 현안을 나누고 실효성 있는 세부 협력 방안을 끌어내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호연 권한대행은 "이번 제6기 계획은 날로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복지 수요와 지역 문제를 먼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만큼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행정력이 단단히 결합해 시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세워 달라"며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정읍형 지능형(스마트) 복지 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용역 수행 기관 역시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정책 대안을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해 형식적인 계획을 넘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 체계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 재산신고 누락 논란

## 시민 고발로 선관위 조사 요청... 고의 누락 여부 놓고 논란 확산

정읍 시민 A씨가 "조국혁신당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가 중요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정읍선관위)에 조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전주MBC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정읍시장 후보자 법정 토론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후보가 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서 신내면 장곡리 신92-1번지 일대 임야 12만6,942㎡(약 3만 8,467평)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후보가 토론회에서 '확인해 보겠다', '정확히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지만, 해당 임야는 축구장 수십 개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로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보유해온 재산을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해당 토지는 4년전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도 이학수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김 후보가 스스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이라고 인정했더라면 명확히 정리될 일이었지만, 이를 숨긴 채 선거가 끝난 뒤 이학수 후보로 멀리 이동해야 했다."

강운희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사계절 내내 풍성한 수산물이 유통되는 활기찬 위판장을 만들고, 하반기 어상자 지원 등 실질적인 어업 환경 개선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관련 재판까지 진행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후보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핵심 재산"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해당 임야가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의도적으로 토지 면적을 줄이려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A씨는 "후보자 재산신고 제도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과 투기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세금 문제 및 도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중요 재산을 누락한 채 신고서를 공개한 것은 결국 유권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해당 토지는 김 후보가 지난 2005년부터 장기간 보유해온 재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누락된 임야 규모가 전체 보유 임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시지가 또한 약 6천 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정도 규모의 재산 누락은 '잘 몰랐다'라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읍선관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의 누락 여부와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를 명확히 밝혀서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

/특별취재반

# 고창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첫 위판' 시작

## 위판장 본격 운영 '활기'... 어업 환경 개선·어민 소득 증대 기대

고창군 구시포항이 최신식 수산물 위판장과 면세유 주유소를 기반으로 서해안 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구시포항 위판장이 지난 22일 중하 2050kg을 첫 위판하며 본격적인 수산물 위판을 시작했다. 향후 중하, 꽃게, 숭어 등 사계절 다양한 어종 위판을 통해 활력 넘치는 위판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수산물 물류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어상자 약 2만개를 전격 지원할 예정이다. 위판 환경을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하여 구시포항 수산물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면세유 주유소 역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어업

인들의 조업 편의를 크게 높이고 지역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구시포항 현지 유류 공급을 통해 올해 1월 본격 기동 이후 면세유 약 113만리터를 공급하며 고부가 가치에 이 동거리 단축과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이전에는 상하·해리의 어업인들은 면세유를 받기 위해 30분 넘게 고창읍으로 멀리 이동해야 했다.

강운희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사계절 내내 풍성한 수산물이 유통되는 활기찬 위판장을 만들고, 하반기 어상자 지원 등 실질적인 어업 환경 개선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올해 첫 일자리창출위원회 개최

## 민선 9기 일자리 정책 수립... 지역 특성 맞는 정책 발굴 머리맞대

정읍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다지기 위해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올해 첫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유호연 정읍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했다. 현장에는 학계 전문가, 일자리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소상공인, 언론인,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다가오는 민선 9기 일자리 정책 안건을 두고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지난해 처음 출범한 이후 총 세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일자리 정책의 기본 계획과 세부 추진 전략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지역과 대학, 산업체, 연구 기관이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 연합(얼라이언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사업과 이동 노동자 휴게 쉼터 조성 같은 신규 사업을 발굴해 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일자리 평가 대회 공시

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돕고 경제적 안정을 더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를 해마다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올해는 약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5개 부서에서 35개 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약 1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에 대비해 '민선 9기 일자리 종합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 계획은 지역 산업과 인구 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다지는 중장기 청사진(로드맵)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변산마실길 '샤스타데이지 만개' 장관

## 송포항~성천항 중심 1코스·4코스 일원... 내달 중순까지 개화

부안군은 변산마실길이 다시 순백의 꽃물결로 물들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5월이면 꽃망울을 터뜨리는 샤스타데이지가 변산마실길 2코스(송포항~성천항)를 중심으로 1코스와 4코스 일원까지 아름답게 피어나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변산마실길 샤스타데이지 군락지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명소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개화 소식과 함께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개화 시기를 맞아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 샤스타데이지는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감



상할 수 있다. 주요 군락지는 변산마실길 2코스 시점부와 4코스 언포 일원에 조성되어 있으며, 마실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순백의 꽃풍경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푸른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샤스타데이지 군락은 변산마실길만의 특별한 경관을 선사하며, 꽃말인 '인내', '순수', '평화'의 의미와 어울려 방문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